



“화이팅”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18일 인천공항에 귀국해 파이팅을 외치며 취재진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대표팀은 지난 17일 폴란드 오스트로비에츠 시베멘토르시스크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FIVB)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주차 3차전에서 홈팀 폴란드를 3-1로 제압하고 2주차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 했다.

“결선 잘 준비해서 우승”

김연경, 폴란드전 역전승 “잃을 것이 없다고 담뭇 것이 주효”

국제배구연맹(FIVB)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2주차 3연전의 하이라이트는 폴란드전이었다. 한국은 5전 전승을 달리던 폴란드에 1세트를 24-26으로 내줬다. 2세트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12-19로 끌려갔다.

폴란드의 높이에 준비했던 플레이가 막히면서 연속 행진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김연경(상하이)을 중심으로 뽕뽕 뭉친 한국은 2세트를 26-24로 가져오더니 세트스코어 2-1로 앞선 4세트 역시 유스 승부 끝에 잡아내며 역전승을 이끌었다.

18일 대표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귀국한 김연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폴란드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 놀랐다고 떠올랐다. 극적인 역전의 원동력은 마음 비우기였다.”

김연경은 “2세트부터는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담뭇했는데 그것이 주효했다면서 “뒤늦게 들어온 황민경이 역할을 잘해줘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폴란드전 승리로 2주차 3연전을 쓸어 담은 한국은 승점 16(5승1패)으로 12개팀 중 선두에 올랐다.

배유나(한국도로공사), 이소영(강소휘(이상 GS칼텍스) 등의 이탈로 12명의 선수들로 레이스를 치르고 있지만 홍성진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투지가 맞물리면서 승리를 쌓아가는 중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간판 김연경 선수 18일 인천공항 귀국인터뷰 모습

이다.

김연경은 “2주간 고생해서 선수들이 합쳐왔는데 한국 온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했다”면서 “선수들이 한국에 온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1일부터 수원에서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폴란드를 차례로 상대한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 3개팀에 주어지는 결선행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29일과 30일 체코에서 열릴 결선에는 개최국 체코와 2그룹 상위 3개팀이 모여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가린다. 체코가 1번 시드를 배정 받았고, 나머지 3개팀은 예선라운드 성적

에 따라 2~4번 시드를 차지한다.

김연경은 “하다보니 선수들과 손발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3주차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수원에서 2승 정도만 하면 결선 진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결선에 잘하는 팀들이 모일 텐데 잘 준비해서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리베로 김해란(흥국생명)은 “선수들의 부상도 많았고 일정도 쉽지 않아 걱정했는데 선수들이 이겨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한국에서의 경기를 잘 마무리 한 뒤 체코에서 꼭 우승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오늘 홈에서 광주FC와 설욕전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트레이드마크 ‘닥공’ 앞세워 리그 1위 지킨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광주FC를 선두수성의 제물로 삼는다.

전북은 오늘 저녁 7시 광주FC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를 치른다.

지난 4월 30일 광주에서 치른 시즌 첫 맞대결에서 0대 1로 패하며 자존심을 상한 전북은 이날 경기에서 대량득점으로 리그 1위의 무서움을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이날도 트레이드마크인 ‘닥공’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부친다.

전북현대에는 전주중합경기장에서 시즌 초반을 보낸 후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와 치른 세 차례의 홈경기

에서 10득점을 올리며 무서운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

최전방에는 에두가 선발로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 상주전에서 후반에 투입돼 경기감각을 끌어올린 에두가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서 공격을 이끌게 된다.

또 3경기 연속 골을 성공시키며 완벽한 부활을 일린 로페즈가 이재성(MF)·이승기와 함께 뒤를 받친다.

이밖에 수비에서는 김진수-이재성(DF)-김민재-최철순이 10경기 무실점에 도전한다.

최강희 감독은 “현재 양 팀의 순위

표는 중요하지 않다. 방심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우리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이 왜 홈에서 강팀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결과와 내용 모두를 가져 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는 입장하는 모든 팬들에게 로페즈 캐릭터 양말을 선착순으로 7,000개를 선분한다.

또한 직장인들의 건전한 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킬파티켓’을 제작 판매해 후반 시작 전까지 맥주를 무제한 제공, 선착순 100명에 랜덤박스 선물 증정 등의 이벤트도 함께 펼친다.

/김민근기자

전주시설공단,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개설·운영

전주시설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시민의 체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18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즐겁고 유익한 방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로 했으며, 접수는 선착순 접수로 각 시설장에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수영강습은 오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달간이며 안전수영장과 덕진수영장에서 실시한다.

초등학생 5만4000원, 중·고생 6만 원, 성인 7만 원이며 선착순 모집한다.

화산체육관·덕진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배드민턴 강습을 한다.

배드민턴은 주 2·3회 강습하며 주 2회 6만 원, 주 3회 8만 원의 강습료를

받는다.

화산체육관 강습기간은 24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덕진실내배드민턴장 강습기간은 28일부터 8월 27일 까지이다.

또한 화산체육관에서는 실내골프 강습을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 4회 7만 원에 받을 수 있다.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주 2회 4만3000원, 주 3회 6만 원 인라인교실을 운영하며 성인은 각각 5만 원, 7만 원이다.

빙상경기장에서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3회 스피드와 피겨종목을

월 5만 원에 강습 받을 수 있다.

인공임벽등반에서도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주2회 5만 원, 성인은 주2회 6만 원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6세-13세 대상으로 매직테니스를 주1회 4만 원, 주2회 7만 원에 강습 받을 수 있으며, 덕진체련공원에서는 8월23.7.8.10.11일 총6회간 소그룹(4명반) 10만 원, 대그룹(8명반) 6만 원의 강습료를 받는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활기찬 방학과 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재용기자

프로야구 넥센, 대니 돈 방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대니 돈(33)을 방출했다.

넥센은 18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외국인 타자 대니 돈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니 돈은 올 시즌 20경기에 출전해

타율 0.140(50타수 7안타)에 1홈런 2타점 5득점을 기록했다.

대니 돈은 지난해 129경기에 출전해 0.295의 타율에 16홈런 70타점을 기록했다.

넥센이 기대한 만큼의 성적은 아니

었지만, 그의 가능성을 보고 재계약을 맺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대니 돈은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었고, 1군과 2군을 오가다가 결국 방출 수순을 밟게 됐다.

넥센은 현재 대니 돈을 대체할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모색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우하람-김영남 조, 세계선수권 다이빙 10m 싱크로 7위

제17회 국제수영연맹(FIVB)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한국 남자 다이빙의 우하람(19)-김영남(21·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조가 세계 7위로 선전했다.

우하람-김영남 조는 18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 남

자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지드 플랫폼 결승)에서 391.17점을 얻었다.

결승에 진출한 12개팀 중 7위를 차지했다.

우하람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 출전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다

이빙 결선에 오르는 주목을 받았다.

우하람은 이번 대회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이 부문 금메달은 498.48점을 획득한 중국의 첸이안-양하오 조에게 돌아갔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